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들끓는 노동계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지침 시달 후속조치 이행

정부-노동계 갈등 심화... 민노총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행정지침 발표에 반발,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민노총은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에서도 금호타이어 노조가 일 단협과 연계해 26일과 27일 이틀간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2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취업규칙' 행정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으로 이뤄졌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

우 배치전환을, 그럼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고한다는 것이다.

'취업규칙'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4

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정부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매일 현장 선전전과 집회를 열기로 했다. 광주본부는 또 27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민노총은 이날 30일 서울 도심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기사자동차 등 지역 대규모 사업장 노조도 27일 부분파업을 결의한 금속노조의 지침을 어떻게 수용할 지 고심 중이다.

일단협 부분파업을 예고한 금호타이어 노조는 사측과 정부를 동시에 규탄하는 부분파업을 26일과 27일 이틀간 벌인다.

기사자동차 광주지회는 금속노조 지침과 관련해 경기도 화성에 있는 기사자동차 부의 노조에 이주 행동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은 앞서 23일 서울광장에서

5000여명이 참가한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어 "정부의 노동 개혁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독재자사상적 위헌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당장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은 우선 '양대 지침'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할 경우 민노총과 공동 대응 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파업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25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차후 사측이 개별 노조에 양대 지침을 내려보내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와 함께 우리가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노조에 보내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26·27일 부분파업

협상 성과 없으면 내달 15일 이후 무기한 파업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는 26~27일 부분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본교섭 결론에 따라 사측을 압박하려는 경고성 파업이지만 노조는 향후 교섭에도 성과가 없으면 다음달 무기한 파업을 예고해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24일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측과의 본교섭 결론에 따른 파업 투쟁지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6~27일 근무조별로 4시간씩 경고성 부분파업을 벌이고 이 기간 연장근로도 거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부분 파업 시기를 전후해 사측과의 교섭을 계속할 예정이다. 교섭에

진척이 없을 경우 다음달 15일 이후부터는 무기한 4시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21일까지 본교섭을 벌여 2015년 일 단협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일시금 상향 등 쟁점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노조는 교섭에서 품질향상장려금 명목으로 일시금을 올려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사측은 일시금을 상향하려면 회사 경영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산과 품질 안정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노조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지난해 39일간 파업 당시 제시했던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다"며 "노사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사측이 원칙을 계속 내세우며 협상을 배양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경영실적 악화에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교섭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소상공인 40% 창업 1년내 폐업

금융·보험업 60%... 평균 부채 1600만원

소상공인의 40%는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은 평균 약 1600만원의 빚을 떠안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소상공인 회전문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전국 창업기업의 40.2%는 1년 내에 폐업한다고 밝혔다.

창업한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2년째에 53.7%였으며, 3년째 62.0%, 4년째 66.6%, 5년째에 69.1%까지 치솟았다.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 업종 중 금융·보험업의 폐업률은 59.9%에 달했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6.4%), 숙박·음식점업(45.0%),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과 도소매업(각각 44.7%)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다.

소상공인들은 폐업할 때 평균적으로 1588만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자금인 303만

원(19.1%), 시중자금이 1285만원(80.9%)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203만원, 음식점업 1298만원, 소매업 1117만원, 개인서비스업 981만원의 부채가 폐업할 때 발생했다.

소상공인들은 폐업하면서 평균 460만원 정도의 비용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순수하게 드는 비용은 138만원으로 인테리어 철거비용 16만원, 집

기상계처리 47만원, 부분철거 19만원, 장비처분 수수료 44만원, 기타 13만원 등에 지출됐다. 나머지 300만원 가량은 권리금 때문에 발생했다. 소상공인이 폐업한 점포를 인수할 때 권리금으로 평균 589만원을 지불하고 본인이 폐업할 때 평균 268만원을 회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321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권리금에 따른 손해는 대도시가 평균 419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중소도시는 266만원, 농어촌은 11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주택 인허가 실적 광주↑·전남↓

경기 하락·공급과잉 우려...착공·분양승인 실적도 급감

지난해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한 가운데 광주 지역에서는 대폭 늘었으나 전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광주가 1만4673호로 전년 1만1056호에서 32.7% 늘었으나 전남은 1만5631호로 전년 1만7628호에서 11.3% 감소했다. 전년도 지역 아파트(공동주택) 등 건축시장의 경기 회복세가 한풀 꺾인 영향으로 풀린다.

주택 착공실적은 광주와 전남이 대폭 줄어 광주가 1만4161호에서 1만232호로 27.7%, 전남은 2만501호에서 1만6603호로 19.0% 줄었다.

공급과잉 우려와 주택경기 하락세는 공동주택 분양에 영향을 미쳐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크게 감소했다.

광주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승인 실적이 하락하면서 1만2948호에서 8394호로 35.2% 감소했으며 전남 역시 1만4326호에서 1만1706호로 18.3%나 줄었다.

주택 준공 실적은 광주 지역은 전년 상승했다. 광주 지역의 지난해 주택 준공 실적은 1만4426호에서 8584호로 40.5%나 감소했으며 전남은 1만7008호에서 1만9056호로 12.0% 증가했다.이는 전남 지역에 귀촌·귀농 인구의 증가에 따른 건축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인허가 된 주택은 76만5328호로 2014년보다 48.5% 늘었으며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7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고속 설 승차권 인터넷 예매

금호고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고속버스와 직행 버스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 예약은 고속버스는 코버스(kobus.co.kr)를, 직행버스는 버스타고(bustago.or.kr)와 이지티켓(easyticket.co.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고객은 탑승 전 터미널 매표소 주변에 설치된 무인발권기를 통해 편하게 승차권을 출력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고속버스 모바일'을 통해 모바일 QR코드를 받으면, 매표창구나 무인발권기를 거칠 필요 없이 고속버스 단말기에 이를 스캔하고 바로 탑승할 수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관광버스회사와 운수협정을 맺고, 수시로 임시차량을 편성해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라며 "명절을 맞아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쉽고 편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보해양조 신입사원 워크숍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지선씨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2박3일 동안 2016년 신입사원 교육을 성료했다.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신입사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회사의 비전과 경영철학 등 보해양조(주)의 핵심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해양조 제공>

한전, 전력수급안정 점검회의

한국전력은 22일 전력그룹사 사장단 전력수급안정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연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그룹사 유기적 협조체제 방안 및 에너지 신산업 추진 등 전력그룹 경영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조환익 사장을 비롯해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전력그룹사 총 11명의 사장이 참석했다. /최재호기자 lion@

로또복권 (제86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7 12 15 24 25 43	1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937,531,719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71,760,435	36
3 5개 숫자 일치	1,386,676	1,863
4 4개 숫자 일치	50,000	91,027
5 3개 숫자 일치	5,000	1,483,73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대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회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타벅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신 여성' 회망 31~58세 VIP 회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회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0 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하차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채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새로운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이스타이로 건축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